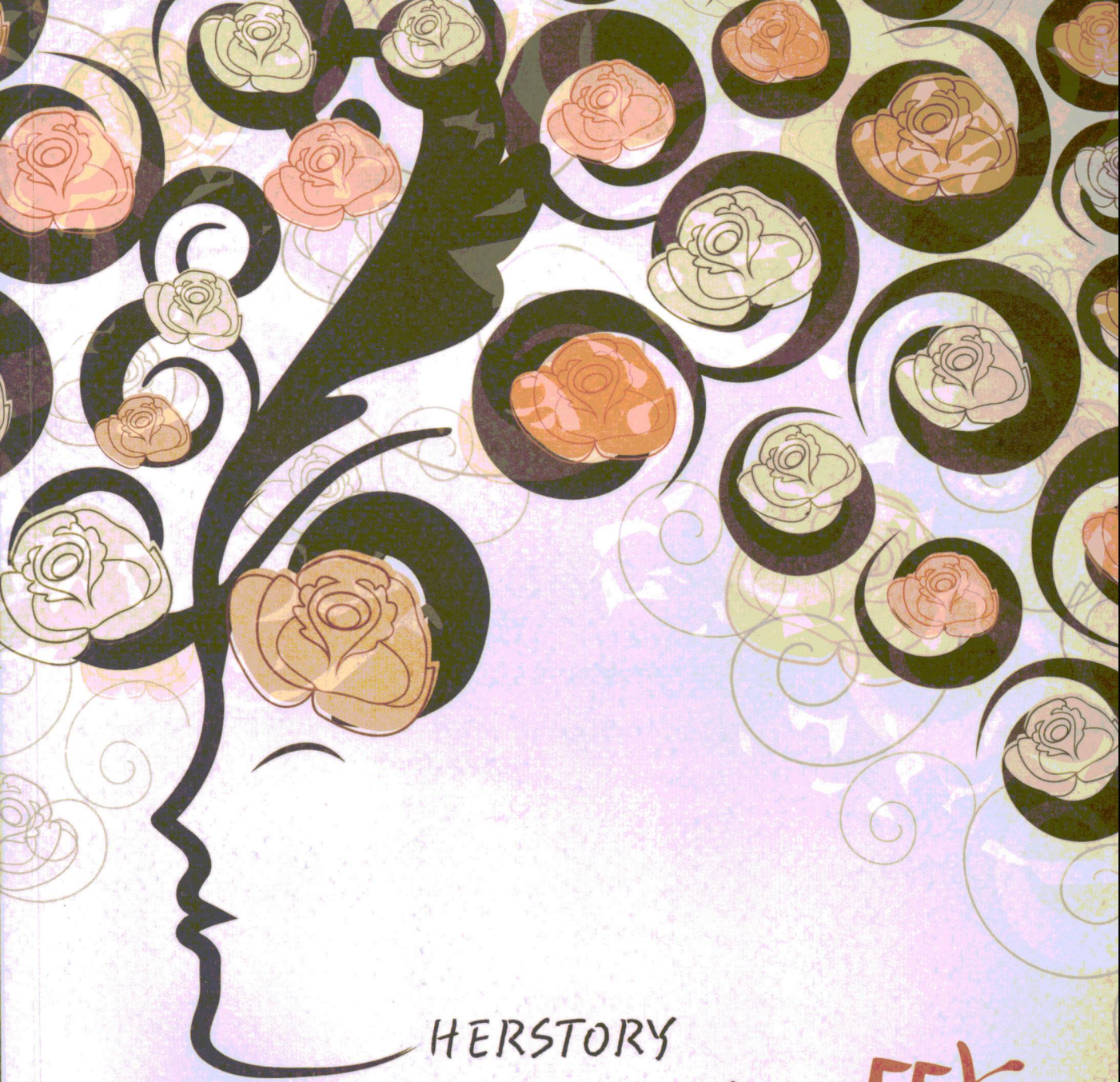




HERSTORY

슬로브하의

따들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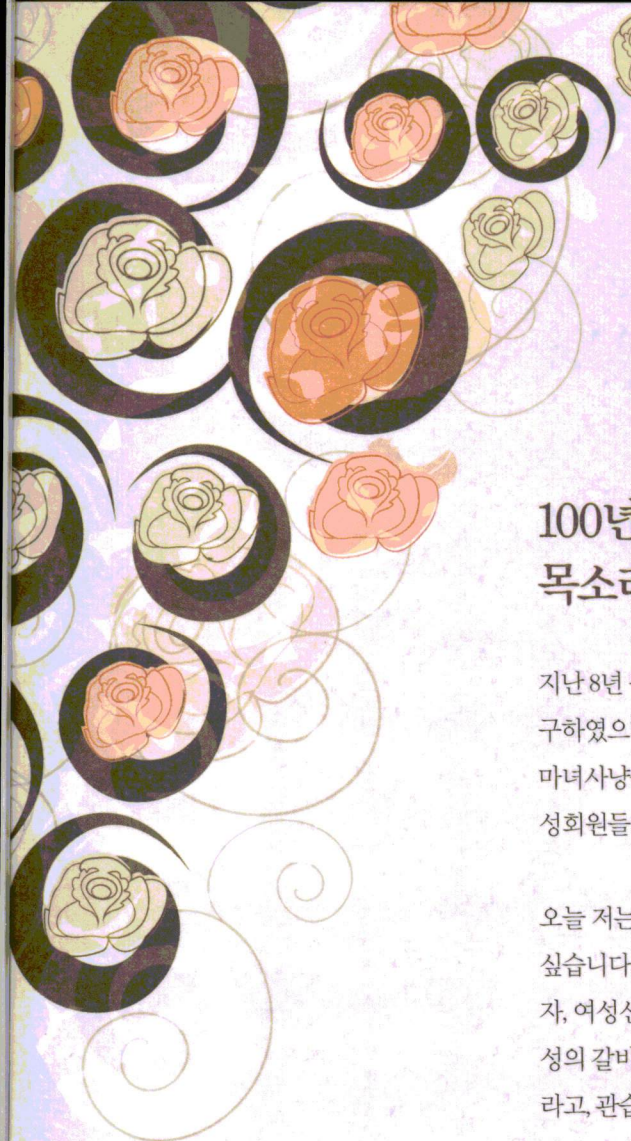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9116

03933

0





100년의 금기와 마초이즘을 넘어서 목소리를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사용가능한 모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평등 실현을 요구하였으나, 남성이사회와 실무 간부들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고, 해마다 총회 때면 고향과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성회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저는 너머서 회원들의 대표로서 서울YMCA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1년 현재 당신의 딸과 며느리, 손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제자, 여성신도들, 70% 이상의 여성회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여전히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 잠잠하라고, 서울YMCA의 M은 사람이 아닌 남자라고, 관습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의 여성상 수상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YMCA는 시민사회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사업을 하여 수 천억원의 자산을 소유한 거대한 공룡이지만 '이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소수의 여성이 보여주었기에 이제부터라도 우리사회 희망의 불씨를 밝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힘겹고 긴 여정이었지만 빛도 이름도 없이 여기까지 함께 두박두박 걸어온 우리 여성회원들에게 무엇보다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사랑과 존경을 바칩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미련없이 또한 기꺼이 서울YMCA를 넘어 차별과 폭력이 없는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CONTENTS

PREVIEW. 서울YMCA 성차별철폐운동경과 · 17

첫 번째 이야기. 서울YMCA의 여성들, 정신을 깨우다 · 21

CHAPTER 1. 초대받지 못한 여성들 · 22

▶ 배반의 계절, 2004년 서울YMCA 제101차 정기총회 · 22

▶ 2004년 제101차 정기총회에서 여성들은 왜 수모를 당했는가 · 27

CHAPTER 2.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저주받은 100주년 · 31

▶ 노욕의 100주년, 모두에 가슴에 멍에를 지우다 · 31

▶ 여성 사안이 주요 개혁과제로 떠오르다 :

개혁재건회의 여성특별위원회 · 37

▶ 서울YMCA의 개혁, 구태 인사의 청산으로부터 :

2003년 서울YMCA 제100차 총회 · 42

▶ '표체제' : 표용은과 서울YMCA의 '재배된 총회원'에 대하여 · 45

CHAPTER 3. 역사적인, 그러나 그 존재마저 부정되는

2003년도 서울YMCA 제100차 총회 결의문 · 52

두 번째 이야기. 서울YMCA의 여성들, CONNECTING 하다 · 57

CHAPTER 1. 깨진 ‘약속’, 개혁 정신은 협잡과 거짓으로 오염되다 · 58

- ▶ 제100차 총회 후 2003년의 서울YMCA · 58
- ▶ 서울YMCA는 여성들을 “특별” 히 부당하게 취급한다,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 63

CHAPTER 2. 서울YMCA와 여성 · 69

- ▶ 서울YMCA 스타일 · 69
- ▶ 서울YMCA에 여성회원이 출현하다 · 70
- ▶ 서울YMCA여성회원활동의 현황 및 여성문제 · 72
- ▶ 서울YMCA는 남성단체인가? · 77

CHAPTER 3. 서울YMCA개혁운동과 개혁재건회의 향방 · 80

- ▶ 개혁의 대상은 스스로를 개혁 할 수 없다 · 80
- ▶ 개혁재건회의, 궁지에 몰리다 · 81

CHAPTER 4. 서울YMCA 성차별철폐 연대회의 · 84

- ▶ 부패하고 관료화된 서울YMCA의 핵심개혁과제는 여성총회원권 · 84
-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대회의 권고,
그러나 여성들은 2005년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원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 86



CHAPTER 5. 여성들이 넘어야 할 것들 · 89

- ▶ 당사자가 배제 된 의미 없는 투표, 2005년 102차 총회 · 89
- ▶ 2005년 102차 총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다 · 92
- ▶ 「너머서」 는 넘고 싶었다 · 94

세 번째 이야기. 서울YMCA의 여성들, 서로를 위로하다 · 97

CHAPTER 1. 단절·거절·무시에 대응하라 · 98

- ▶ “법 대로 해라” ... 여성회원들,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다 · 98
- ▶ 절차이행 가처분신청...(제발...) 총회원권을 인정해 주세요... · 99
- ▶ 손해배상청구...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그래도 우리는 서울YMCA의 회원이고 싶다 · 104
- ▶ 성차별 단체인 서울YMCA,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자격 없다 · 118

CHAPTER 2. 해도 해도 너무나 서울YMCA · 121

- ▶ 청천벽력 같은 헌장 개정안... ‘사람’ 을 ‘남성’ 으로? · 121
- ▶ 서울YMCA 여성실무자들, 그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철야·단식기도회를 진행하다 · 127
- ▶ 2006년 103차 총회, 서울YMCA는 섬이었다 · 128
- ▶ 2006년 103차 총회 이후... 이제는 다리마저 끊겼다 · 130

네 번째 이야기. 서울YMCA의 여성들, 다시 생명의 씨를 품다 · 135

CHAPTER 1. 한국YMCA와 여성들 · 136

- ▣ 서울YMCA에 대한 한국YMCA전국연맹의 입장 · 136
- ▣ 서울YMCA퇴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특별위원회 · 140

CHAPTER 2. 퇴회... YMCA를 새로 건설하는 심정으로... · 145

- ▣ 서울YMCA 퇴회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 · 145
- ▣ 여성총회원권에 대한 전국 YMCA 입장 :
한국YMCA간사회와 사무총장협의회 · 150

CHAPTER 3. 서울YMCA는 밑동까지 잘려 죽은 나무가 되었다 · 153

- ▣ 2007년, 여성회원들은 다시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 · 153
- ▣ 여성회원들이 서울YMCA의 사망을 선언하다 · 155
- ▣ 죽은 나무에 새순이 돋을 수 있을까 · 157

에필로그. 새로운 HERSTORY를 위하여 · 161